



#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성별 음란물 접촉실태와 성 갈등에 대한 연구

차남현<sup>1)</sup> · 왕명자<sup>2)</sup> · 유경희<sup>3)</sup> · 김정아<sup>4)</sup>

1)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동서간호학연구소 상임연구원  
3)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생, 4) 세명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Study of Contact with Pornographs and Feeling of Sexual Conflict in Upper Grade Elementary School Boys and Girls

Cha, Nam-Hyun<sup>1)</sup> · Wang, Myoung-Ja<sup>2)</sup> · Yu, Kyung-Hui<sup>3)</sup> · Kim, Jeong-Ah<sup>4)</sup>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2)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hee University; Researcher, East-West Nursing Research Institute

3) Master's Degree Graduate,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hee University

4)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the contact with pornographs of elementary school boys and girls and to confirm responses after that, and to compare the feeling of sexual conflict between the boys and girls. **Methods:** The subjects were 952 5th and 6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in four city areas(456 boys, 496 girls). Data collection was via questionnaires **Results:** Except several pupils(34.4% of boys, 27.4% of girls), most of subjects of the study had no contact with pornographs. The response after the contact

with pornographs was feeling of shame the most, which was a negative reaction. The sexual conflict appeared more in pupils who had contact with pornographs than in those who had not boys( $t=3.84, p<.000$ ), girls( $t=3.96, p<.000$ ), which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However, the conflict between boys and girls wa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Conclusion:** We would like to suggest that a sound control system must be prepared and a development of programs related to sexual education and promotion of ability fighting against them that can release their impulse of sex.

주요어 : 초등학생, 음란물 접촉, 성 갈등

투고일: 2007년 11월 26일 심사완료일: 2007년 12월 15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a, Nam-Hyun(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Cha, Nam-Hyun: 60 Samkae-dong, Kimhae-si, Gyeongnam 621-748, Korea

Tel: 82-55-330-1141 Fax: 82-55-330-1113 E-mail: yeoreo@daum.net

Key words : Students, Sex, Conflict

## 서론

### 연구의 필요성

한 개인의 삶에 있어 성(性)적 발달은 매우 중요하다. 미래 사회구성원인 아동은 그 사회의 관습이나 문화, 성가치관, 행위 유형을 답습하기도 하지만, 자신들만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그리고 행동 특성을 형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성(sexuality)과 관련된 인식이나 태도, 행동규범 등의 문화를 습득해 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성에 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안전하지 않은 성적 접촉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Kim, 2003)고 할 수 있다. 여과 없이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에 의해 건전한 문화의 확산과 같은 긍정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지만, 허위정보의 유통 및 정보 통제에 의한 대중조작, 저급문화의 전파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보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성지식과 정보를 대중매체나 친구를 통해 습득하고(Park, 1997; Oh, 2003)있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있어, 육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고 있는 정서적, 성적 격동기(Kim, 2003)의 청소년들에게 작금의 미디어시대의 무차별적 정보의 노출은 성(sex)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 확립을 위협하고 있다.

초등학교 아동이 성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 경로에 대하여 조사한 Hong(2003)은 부모나 교사로부터 습득하는 경우보다는 TV, 신문, 잡지, 영화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습득하거나 아동들의 동료집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Strasburger(1996)는 청소년들의 가치관 또한 부모에게 영향을 받기보다는 대중매체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Kim과 Woo(2001)는 음란물에 대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노출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음란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는 법적규제 및 등급제와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통한 감시활동을 펴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효

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으며(Park, 2001), 음란물 공개가 심각한 수위에 이른 현 시점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발한 성교육도 범람하는 음란물에 대한 견제, 조정, 지도하는 일이 충분치 못하다(Hong, 2003).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의 부정적인 면과 음란물에 대한 부모들의 지도가 부족한 실정에 있다(Oh, 2003).

음란물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관련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근래에 들어서 조금씩 시작되었다. 연구내용면에서, 음란물 접촉 실태 조사(Kim & Woo, 2001; Kim, 2002)와 음란물 접촉경험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성의식, 성행동의 차이 연구(Kang, 2004; Kim, 2004; Oh, 2003; Hong, 2003) 등으로, 성별차이에 따라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성 갈등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초등학교 아동의 음란물 접촉은 일시적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며 왜곡된 성지식을 전달하고 성가치관의 혼란과 성 갈등을 겪으며 나아가 개인의 인격형성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Park, 2001)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음란물의 홍수 속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남녀별 음란물접촉 유형과 접촉실태, 접촉 후 반응, 성 갈등에 대하여 분석하여, 일차적으로 음란물의 폐해를 지적하고, 성별에 따른 음란물 접촉 유형과 실태, 성 갈등정도를 살펴보고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에 대한 성적 측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성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5, 6학년) 남녀 아동을 대상으로 음란물 접촉여부를 파악하고, 음란물 접촉유형과 접촉실태, 접촉 후 반응을 확인하고, 초등학교 남녀 아동의 음란물 접촉에 따른 성 갈등정도를 살펴봄으로써 남녀 아동의 성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성교육 자료를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남녀 아동별 음란물 접촉 유형은 차이가 있는가?
- 남녀 아동별 음란물 접촉 행태는 차이가 있는가?

- 남녀 아동별 음란물 접촉 후 반응은 차이가 있는가?
- 남녀 아동별 음란물 접촉에 따른 성 갈등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5, 6학년) 남녀아동의 음란물 접촉여부, 접촉 실태를 파악하고, 음란물 접촉여부에 따른 성 반응과 갈등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자의 편의에 의해 접근이 가능한 6개 초등학교를 임의 선정한 후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연구에의 참여 동의를 구하였다. 선정된 초등학교의 5·6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2학급씩 무작위로 표출하였다. 표출된 학급 중에서 연구에의 참여를 동의한 아동 952명을 최종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는 총 31문항으로 이루어진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음란물 접촉 여부를 묻는 7문항, 대상자가 접촉한 음란물의 유형과 음란물 접촉 실태를 묻는 7문항, 음란물 접촉 후 반응을 묻는 12문항, 성 갈등 정도를 묻는 7문항이었다.

#### ● 음란물 접촉과 반응의 측정

음란물 접촉과 반응에 대한 측정은 음란물 유형, 접촉실태, 접촉후의 반응으로 구성하였다. 접촉한 음란물의 유형에는 5가지 음란물 종류에 접촉한 경험을 복수로 '예'와 '아니오'로 응답하게 하였고, 음란물 접촉행태에는 음란물을 접촉한 학년, 동기, 빈도, 시간,

장소, 이유에 대하여 '예'와 '아니오'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음란물 접촉 후 반응은 Lee(1988)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사용한 음란물 접촉 후 반응척도를 초등학교 수준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부정적 느낌 4문항, 긍정적 느낌 4문항, 충동적 느낌 4문항의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예'와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 성 갈등의 측정

성 갈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Lee(1998)가 YMCA 청소년 성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도구를 초등학교 수준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성 갈등 측정도구는 총 7문항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하였다. 점수는 최저 7점에서 최고 3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 갈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199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 수집은 2004년 4월 13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서울 인천 경기도 부산에서 시행하였다. 연구자가 학교 보건교사와 함께 대상아동을 만나 연구의 취지와 목적,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자와 학교 보건교사가 설문지 기입요령을 설명한 후 아동에게 자가 기입형 구조화된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애매보호하거나 불분명한 정보는 명확히 한 후 수거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1020부이었으나 1001부가 회수되어 회수율 98.1% 이었다. 회수된 1001부의 자료 중에서 전혀 기재되지 않고 회수된 자료와 무응답, 중복응답이 있는 등 부적합한 자료 49부를 제외한 총 952부(95.1%)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1.1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남녀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확인은  $\chi^2$ -test로 검정하였다.
- 남녀 아동별 접촉 음란물 유형과 반응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남녀 아동의 음란물 접촉 행태에 대한 비교는  $\chi^2$ -test로 검정하였다.
- 남녀 아동의 음란물 접촉에 따른 성 갈등의 차이는 t-test로 검정하였다.

## 연구 결과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증

대상 아동은 총 952명으로 남자는 47.9%(456명)이고 여자는 52.1%(496명)이었다<Table 1>. 대상 아동의 거주 지역은 서울지역 거주 남아 26.3%(120명), 여아 24.8%(123명), 타 지역 거주 아동은 남녀가 대

체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학년분포는 남자는 6학년 51.3%(234명), 5학년 48.7%(222명)이며, 여자는 5학년 51.4%(255명), 6학년 48.6%(241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chi^2=.628, P>.05$ ). 종교 분포는 남아 33.3%(152명), 여아 39.3%(195명)로 남녀 아동 모두 기독교를 많이 믿고 있으며, 남아 28.1%(128명), 여아 25.2%(125명)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하여 남녀 아동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chi^2=3.988, P>.05$ ).

가족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 중인 아동은 남아 3.5%(16명), 여아 2.4%(12명)이었고, 남아 2.4%(11명), 여아 1.8%(9명)는 부모님과 사별하였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부모들이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녀 아동 간에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chi^2=1.434, P>.05$ ). 형제가 1명인 경우는 남아가 70.0%(319명), 여아가 62.9%(312명)이며, 형제가 2명인 경우는 여아 22.2%(110명), 남아 14.7%(67명)이었다. 형

<Table 1>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N=952)

Characteristic	Categories	Male (N=456)		Female (N=496)		$\chi^2$	P	
		N	%	N	%			
Residence	Seoul	120	26.3	123	24.8	.628	.890	
	Kyungki-Do	114	25.0	119	24.0			
	Incheon	113	24.8	128	25.8			
	Busan	109	23.9	126	25.4			
Grade	5	222	48.7	255	51.4	.709	.401	
	6	234	51.3	241	48.6			
Demo-socio characteristics	Religion	Christianity	152	33.3	195	39.3	3.988	.408
		Buddhism	119	26.1	116	23.4		
		Catholicism	52	11.4	56	11.3		
		No religion	128	28.1	125	25.2		
		Others	5	1.1	4	.8		
Marital status of Parents	Married	429	94.1	475	95.8	1.434	.488	
	Divorced · Seperated	16	3.5	12	2.4			
	Widowed	11	2.4	9	1.8			
Brother & sister (Person)	1	319	70.0	312	62.9	9.489	.023*	
	2	67	14.7	110	22.2			
	3<	28	6.1	34	6.8			
	No	42	9.2	40	8.1			
Characteristics related to pornography	Experience that heard about Pornographic material	Yes	288	63.2	300	60.5	.719	.396
		No	168	36.8	196	39.5		
	Pornographic contact	Yes	157	34.4	136	27.4	5.481	.020*
		No	299	65.6	360	72.6		
Total		456	100.0	496	100.0			

\*p< .05

제가 없는 경우는 남아 9.2%(42명), 여아 8.1%(40명)로 남녀 아동 간에 형제 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9.489, P<.05$ ). '음란물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아 63.2%(288명), 여아 60.5%(300명)으로 남녀 아동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chi^2=.719, P>.05$ ), 남아 34.4%(157명)와 여아 27.4%(136명)가 '음란물에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녀 아동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5.481, P<.05$ ).

연구대상 남녀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에서는 아동의 형제수와 음란물 접촉 경험을 제외하고 거주 지역, 학년, 종교, 가족관계, 음란물에 대해 들어본 경험에서 남녀 아동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결과를 나타냈다

### 음란물 접촉 실태

대상 아동 952명중 음란물에 접촉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아 34.4%(157명), 여아 27.4%(136명)로 총 30.8%(293명)이었다. 음란물에 접촉한 경험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접촉 유형과 행태, 그리고 접촉 후 반응을 분석하였다.

### 음란물 접촉유형

대상 아동의 음란물 접촉 유형에 대해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남녀 아동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음란물 접촉 유형은 'PC 통신이나 인터넷 등 컴퓨터를 통해 음란물을 보았다'로 남자는 82.8%(130명), 여자는 90.4%(123명)이었다. 나머지 '포르노잡지와 포르노 사진첩을 보

았다'는 경우는 남아 7.0%(11명), 여아 4.4%(6명)이었고, '성인용 포르노 비디오를 보았다'는 경우는 남아 7.6%(12명) 여아 3.7%(5명)이었다. '성인용 주간지와 만화를 보았다'는 경우는 남아 7.0%(11명), 여아 3.7% (5명)이었으며, '전화를 통한 음란한 음성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는 경우는 남아 3.8%(6명), 여아 7.4% (10명)이었다. 기타 '광고지와 같은 음란물 접촉 유형에 대한 접촉빈도는 남아 10.2%(16명), 여아 3.7%(5명)로 남녀 아동의 음란물 접촉유형은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 음란물 접촉 행태

음란물 접촉의 시기, 동기, 빈도, 시간, 장소, 이윅 등 접촉행태에 대한 남녀 아동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음란물 첫 접촉 시기를 '5학년 때'라고 응답한 남자는 39.5%(62명), 여자는 44.1%(60명)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고, '4학년 이전'이라고 응답한 아동은 남아 31.8%(50명), 여아 30.9%(42명)이었다. '6학년 때'라고 응답한 아동은 남아 28.7%(45명), 여아 25.0%(34명)로 응답하였다. 음란물 접촉 시기는 남녀 아동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hi^2=3.510, P>.05$ ).

음란물 접촉 동기에 대하여 '우연히'라고 응답한 경우는 남아 51.6%(82명), 여아 53.7%(73명)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스팸메일을 통해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남아 28.7%(45명), 여아 40.4%(55명)이었다. 기타응답으로, '친구, 형제 권유'라고 응답한 남자는 14.0%(21명), 여자는 4.4%(6명)이었다. '호기심'으로

<Table 2> Pattern of pornographic contact\* (N=293)

Categories	Male (N=157)		Female (N=136)	
	N	%	N	%
Via computer	130	82.8	123	90.4
Via pornographic magazine · photograph album	11	7.0	6	4.4
Via Pornography video for adult	12	7.6	5	3.7
Via News weekly for adult · cartoon	11	7.0	5	3.7
Via Cellular phone · telephone	6	3.8	10	7.4
Etc. (handbill)	16	10.2	5	3.7
Total	186	118.4	154	112.9

\* Double response

<Table 3> Behavior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pornographic contact

(N=293)

Behavioral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le (N=157)		Female (N=136)		$\chi^2$	P	
		N	%	N	%			
Time of grade	< 4	50	31.8	42	30.9	3.510	.743	
	5	62	39.5	60	44.1			
	6	45	28.7	34	25.0			
Motive	Accidentally	82	51.6	73	53.7	9.239	.002**	
	Spam mail	45	28.7	55	40.4			
	Others	30	19.7	8	5.9			
	Total	157	100.0	136	100.0			
Frequency	2-5/week	14	9.2	5	3.8	10.971	.004**	
	1/month	26	17.1	12	9.0			
	1/few month	40	26.3	26	19.5			
	No cycle	72	47.4	90	67.7			
	Total	152	100.0	133	100.0			
Minute	<15	132	86.8	127	96.2	12.426	.002**	
	15<	20	13.2	5	3.8			
	Total	152	100.0	132	100.0			
Type of pornographic contact	Place	Home	99	68.8	97	81.5	8.468	.037*
		Friend's house	23	16.0	9	7.6		
		PC room	6	4.2	7	5.9		
		Others	16	11.0	6	5.0		
	Total	144	100.0	119	100.0			
Reason	By chance	51	35.7	71	57.3	22.706	.000***	
	Curiosity	38	26.6	13	10.5			
	Spam mail	28	19.6	31	25.0			
	Others	26	18.1	9	7.2			
	Total	143	100.0	124	100.0			

\* p<.05, \*\* p<.01, \*\*\* p<.001

직접 찾은 경우는 남아 5.7%(9명), 여아 1.5%(2명)이었다. 남녀 아동 모두 음란물에 '우연히' 접하는 경우가 많았고 '스팸메일을 통해서'는 남아보다 여아가 접하는 경우가 더 많아 남녀 아동 간에 음란물 접촉 동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hi^2=9.239$ ,  $P<.002$ ).

음란물 접촉 빈도에 대하여 남아 26.3%(40명)와 여아 19.5%(26명)가 '거의 안 본다'에 응답하였고, 남아 26.3%(40명)과 여아 19.5%(26명)은 '몇 달에 한번 본다'에 응답하여 대부분의 아동은 음란물 접촉 빈도가 매우 낮았다. 하지만, '주에 1-5회 이상' 보는 남아는 9.2%(14명), 여아는 3.8%(5명)이고, 그중 '거의 매일 본다'에 응답한 남아 4.5%(7명)와 여아 0.7%(1명)도 있어 일주일에 몇 번씩 음란물에 접촉하는 아동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녀 아동 간에 음란물 접촉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10.971$ ,

$P<.004$ ). 음란물과의 1회 접촉시간에 대하여 남아 86.8%(132명)와 여아 96.2%(127명)가 '15분미만'이라고 응답하여 대부분은 1회 접촉에 15분 이하이었다. 1회 접촉에 '15분 이상' 보는 아동은 남아 13.2%(30명), 여아 3.8%(5명)로 음란물 1회 접촉시간은 남녀 아동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12.426$ ,  $P<.002$ ).

음란물과의 접촉 장소에 대해 남아 68.8%(99명), 여아 81.5%(97명)가 '자신의 집'이라고 하여 응답빈도가 가장 많았고, '친구집'이라고 응답한 아동은 남아 16.0%(23명), 여아 7.6%(9명)이었으며, 'PC방'은 남아 4.2%(6명), 여아 5.9%(7명)이었고 기타 응답으로 '학교에서'는 남아 0.6%(1명), 여아 1.5%(2명)이었다. 따라서 음란물 접촉 장소는 남녀 아동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8.468$ ,  $P<.037$ ).

음란물과의 접촉이유를 남아 35.7%(51명), 여아

57.3%(71명)가 '우연히'라고 하여 응답 빈도가 가장 많았다. 남아는 26.6%(38명)가 '호기심' 때문에, 19.6%(28명)가 '스팸메일'을 열어보다가, 기타 응답으로 '친구'가 권해서, '재미, 스트레스 해소', '성충동'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여아는 25.0%(31명)이 '스팸메일'을 열어보다가, 10.5%(13명)이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응답하였고, 기타로 '친구'가 권해서, '재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성충동' 때문에, '성적지식 습득' 순으로 응답하여, 음란물 접촉이유는 남녀 아동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22.706, P<.000$ )

**음란물 접촉 후 반응**

음란물에 접촉한 남아 157명과 여아 136명에게 복수응답을 허용하면서 음란물 접촉 후 반응을 부정적 반응, 긍정적 반응, 충동적 반응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음란물 접촉 후 반응은 부정적 문항, 긍정적 문항, 충동적 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아동에게 해당되는 곳에 중복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정적 문항에 대하여 남아 202.2%(317명)와 여아 214%(291명)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남녀아동은 비슷한 수준에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긍정적 문항에 대하여 남아 125.5%(197명), 여아 26.5%(36명)가 충동적 문항에 대하여 남아 51.6%(81명), 여아

24.9%(34명)가 응답하였다. 아동은 긍정적 반응과 충동적 반응에 있어서는 남녀 아동 간에 차이가 있었다.

음란물에 접촉한 남아 157명의 부정적 반응의 내용을 살펴보면, 64.0%(100명)가 '부끄럽고 창피하다'에, 48.4%(76명)가 '죄책감'에, 47.8%(75명)가 '내가 이상한건가 하는 생각'에, 42.0%(66명)는 '혐오감'의 항목에 응답하였다. 여아 136명 중 68.4%(68.4%)는 '부끄럽고 창피하다'에, 54.4%(74명)는 '혐오감'에, 47.1%(64명)은 '내가 이상한건가 하는 생각'에, 44.1%(60명)은 '죄책감'의 항목에 응답하여, 음란물 접촉 후 부정적인 반응의 문항별 빈도는 남녀 아동 간에 유사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음란물 접촉 후 남아 157명의 음란물 접촉에 대한 긍정적 반응의 내용을 살펴보면, 79.0%(124명)은 '대리만족으로 마음이 편안해짐'에, '성지식에 도움 됨'이라는 문항에 16.6%(26명),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에 15.3%(24명),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전환이 됨'에 14.6%(23명)가 응답하였고 여아 136명 중 16.9%(23명)은 '성지식에 도움 됨'에,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전환이 됨'에 4.4%(6명),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에 3.7%(5명), '대리만족으로 마음이 편안해짐'에 1.5%(2명)이 응답하였다. 여아는 남아에 비해 음란물 접촉 후 긍정반응을 나타내는 문항에 대한 응답율이 저조하였고, 응답순위도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음란

<Table 4> Reaction after pornographic contact\*

(N=293)

Item	Categories	Male (N=157)		Female (N=136)	
		N	%	N	%
Negative response (4)	Feeling of ashamed	100	64.0	93	68.4
	Dislike feeling	66	42.0	74	54.4
	Guilty feeling	76	48.4	60	44.1
	Ideas which I am strange	75	47.8	64	47.1
	Total	317	202.2	291	214
Positive response (4)	Satisfaction by proxy	124	79.0	2	1.5
	Helpful in sex knowledge	26	16.6	23	16.9
	Become pastime that see	23	14.6	6	4.4
	Get rid of Stress	24	15.3	5	3.7
	Total	197	125.5	36	26.5
Feeling an impulse (4)	Ideas that want to see again	34	21.7	12	8.8
	Mind creation that want to imitate	18	11.5	7	5.1
	Because Sex instigation is rising, move to action	9	5.7	7	5.1
	Do masturbation action	20	12.7	8	5.9
	Total	81	51.6	34	24.9

\* Double response

물 접촉 후 남아 157명과 여아 136명의 충동적 반응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남아 21.7%(34명)와 여아 8.8%(12명)는 '자꾸 생각나 다시 보고 싶어진다'에, 남아 12.7%(20명)와 여아 5.9%(8명)가 '자위행위를 한다'에, 남아 11.%(18명)와 여아 5.1%(7명)는 '모방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에 응답하여, 남아가 여아에 비하여 음란물 접촉 후 충동적 반응이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성 갈등 정도**

남녀 아동에게 성과 관련된 고민이나 갈등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위해 남녀 아동의 음란물 접촉 여부에 따라 서로 비교하였다<Table 5>. 음란물 접촉 아동의 성 갈등은 남아 평균 9.66점(SD 4.34점)이고, 여아 9.84점(SD 4.49점)으로 성 갈등은 남녀아동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t=.072, P>.05$ ), 음란물 접촉 여부에 따른 성 갈등은 남녀아동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음란물과 접촉한 남이는 성 갈등 평균 9.66점(SD 4.34점), 비접촉 남이는 평균 8.19점(SD 2.83점)으로 남이는 음란물 접촉여부에 따라 성 갈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3.84, P<.001$ ), 음란물과 접촉한 여아의 성 갈등점수는 평균 9.84점(SD 4.49점)이고, 비접촉 여아는 평균 8.24점(SD 2.56점)으로 여아는 음란물 접촉여부에 따라 성 갈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3.96, P<.001$ ).

따라서, 음란물에 접촉한 후 남녀아동의 성 갈등 점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음란물 접촉후 성 갈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음란물에 접촉한 경우는 접촉하지 않은 경우보다 남녀아동에서 모두 성 갈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 대상 아동 952명중 '음란물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남이는 63.2%(288명)이고 여아는 60.5%(300명)이지만, '음란물에 접촉한 경험'이 있다에는 남아 34.4%(157명), 여아 27.4%(136명)가 응답하여, 대부분의 아동은 음란물에 대하여 들어본 경험은 있지만, 접촉한 경험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 아동을 연구한 Kim과 Woo(2001), Kim(2002)과 Kang(2004)이 음란물 접촉자율을 각각 20.3%, 28.6%, 30%로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보다 더 높은 퍼센트를 나타내었다. 처음 음란물을 접촉한 시기는 '5학년'때가 남가 아동 39.5%, 여아 44.1%로 가장 많았고, '4학년 이전'도 남아 31.8%, 여아 30.9%로서, 음란물을 첫 접촉한 시기가 4학년 이전 16.8%(Kim, 2002), 19.8%(Oh, 2003)라는 선행연구에 비하면, 본 연구 대상 아동의 '4학년 이전' 음란물 접촉 비율이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초등학교 아동들이 상업적인 성에 노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매스미디어의 광범위성, 대중성, 능동성, 동시성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음란물 접촉율 및 저학년 접촉빈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접촉한 음란물 유형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컴퓨터를 통해 음란물을 보았다'는 남아 82.8%(130명), 여아 90.4%(123명)로 가장 빈도가 높은 접촉유형이고, 다른 음란 접촉 유형은 비슷한 빈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컴퓨터를 통한 음란물에 초등학교 아동이 쉽게 접촉하고 있음을 지적한 선행연구(Yom, Yun, & Lee, 2002; Hong, 2003; Kang, 2004)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증하고, 학교나 주택가 주변 PC방이 즐비하면서 음란물들을 더욱 쉽게 볼 수 있게 된 때문

<Table 5> Differences in sexual conflict by gender related to pornographic contact

Group	Pornographic contact	Mean	SD	t	P
Male	Yes	9.66	4.34	3.84	.000***
	No	8.19	2.83		
Female	Yes	9.84	4.49	3.96	.000***
	No	8.24	2.56		
		t=.072	P=.942		

\*\*\*p<.001



로 사료된다. 이에 대해, Kim과 Woo(2001), Park(2001)는 연구에서 컴퓨터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의 설치가 각각 19.4%, 13.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컴퓨터 매체를 이용한 인터넷 음란물은 대중성과 동시성 등의 특성이 있어 미성년자의 접근이 쉽고 광범위하게 노출이 될 수 있는 반면,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과 대책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정부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규제 및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의 설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음란물에 접촉하는 동기는 '우연히'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남아 51.6%, 여아 53.7%) '스팸메일'을 통해서, 친구 및 형제'의 권유로, '호기심'으로 직접 찾아봄 순으로, 남녀 아동 모두 우연히 접하는 경우가 많았다. '스팸메일'을 통해서 남아보다 여아가 접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2005)에서 제시한 청소년 음란물 사이트 접속경로로 우연히(남아 32.7%, 여아 35.5%), 친구나 선후배 소개로(남아 31.5%, 여아 11.7%), 일부러 음란물 검색(남아 20.9%, 여아 6.9%), 스팸메일(남아 6.5%, 여아 14.8%)과 순서가 일부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이 무엇보다 우연히 음란물을 접하는 경우가 많은 결과는 포르노 사이트의 무차별적 음란물 배포에 대하여, 초등학교 아동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며, 현재 이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치의 미흡을 의미하는 것이다.

음란물과 접촉하는 빈도는 '거의 안보거나 특정 싸이클이 없다(남아 73.7%, 여아 87.2%)'는 응답이 많았고, '거의 매일 보는' 남아는 4.5%, 여아는 0.7%였다. 이는 통계청(2005)의 청소년 음란사이트 이용경험 조사에서 '한번도 없음'(남아 24.5%, 여아 70.6%), '일년에 1-2회' 접촉하는 남아가 15.8%, 여아 8.5%, '한달에 1-2회' 접촉하는 남아 26.8%, 여아 4.8%, '일주일에 1-2회' 접촉하는 남아 15.9%, 여아 1.9%라는 결과에서 제시하듯이, 대부분 아동은 음란물에 접촉하지 않고 있으나, 음란물 접촉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았다. 음란물과 접촉하는 기간은 '15분 미만'이 남아 86.8%, 여아 96.2%로 가장 많았고, '15분 이상'은 남아 13.2%, 여아 3.8%로 대부분의 아동은 음란물 접촉

시간이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수이기는 하나 정기적으로 음란물에 접촉하는 아동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음란물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일수록 학습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음은 물론, 성과 관련된 반응에 있어서 보다 쉽게 자극 받고 충동을 일으키며, 그 충동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고(Oh, 2003), 중독성이 강하며, 성에 대해 비하하는 태도와 행위, 충동조절 능력 저하, 폭력적이거나 모욕적인 성 행위를 선호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학교당국, 부모님의 음란물에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시급하다.

음란물과 접촉하는 장소는 자기 집(남아 68.8%, 여아 81.5%) 가장 많았고, 친구집(남아 16.0%, 여아 7.6%), PC방(남아 4.2%, 여아 5.9%), 학교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통계청(2005)에서 보고한 6-14세 어린이가 이용하는 인터넷 장소로 가정 90.5%, PC방 및 게임방 25.8%, 학교 18.2% 라는 결과와 순위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음란물 접촉이 가장 많다고 응답한 가정에서 부모의 음란물 방지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공개적으로 아이들과 PC를 공유하는 방을 마련하고 음란물 차단 시스템을 PC에 설치하며, 수시로 관심 있게 보는 사이트 및 정보를 확인, 대화하고 컴퓨터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아이들의 건전한 컴퓨터 이용문화를 형성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음란물 접촉 이유는 '우연히'가 가장 많았고(남아 35.7%, 여아 57.3%), 남아는 '호기심' 때문에, '스팸메일'을 열어보다가, '친구'가 권해서, '재미, 스트레스 해소와 성충동' 때문이라고 답했고, 여아는 '스팸메일'을 열어보다가, '호기심' 때문에, '친구'가 권해서, '재미, 스트레스 해소' 위해, '성충동과 성적지식'을 얻기 위해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의도적인 접촉보다 비의도적인 접촉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져 다행스럽긴 하나, 음란물은 처음 접했을 경우 충격적이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접하면서 무더지고 점차 더 자극적인 음란물을 경험하고자 하며 모방행동으로까지 발전되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초·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Hong(2003)의 연구에서 음란물 경험 후 실례로 '모방행동을 해 본적이 있다'에 11.1%가 응답한 것으로 볼 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음란물 접촉 후 반응은 부정적 반응에 대한 응답율이 높

은 반면, 긍정적이거나 충동적 반응에 대한 응답율은 저조하였다. 부정적인 반응은 '부끄럽고 창피하다'가 (남아 31.5%, 여아 32.05%) 가장 많았고, 남아는 '죄책감', '내가 이상한건가 하는 생각', '혐오감'을, 여아는 '혐오감', '내가 이상한건가 하는 생각', '죄책감'순으로 반응하였다. 음란물 접촉 후 반응이 긍정적 반응보다는 부정적 반응에 대한 응답이 많은 것을 볼 때, 음란물 접촉아동은 음란물을 통해 성이 아름답고 신성한 것이 아닌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되어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게 되며,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선행연구(Kang, 2004; Kim, 2004; Oh, 2003; Kim, 2002)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성 갈등은 남녀 아동 모두 음란물에 접촉한 아동이 접촉하지 않은 아동보다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란물 접촉후 아동간의 성 갈등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성별에 따른 성 갈등은 차이가 없었다. 음란물에 노출될수록 중독성이 강하여 성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에게 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쉬우므로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서구에서는 영상매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스크린(screening)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TV에 V-chip을 설치해 부모나 성인의 감독 없이 영상매체에 근접하지 못하게 한다(Cho & Kim, 2004).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방책이 실질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음란물을 못 보게 막으려 시도하기 보다는 아동에게 음란물에 대한 비평능력을 심어주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성교육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Gruer와 Grube(2000)의하면, 얼마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지 아무런 비판없이 무분별하게 청소년이 음란물에 접하면, 음란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으나, 실제로 성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올바른 성 지식 습득하였을 때 성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였고, 음란물의 영향을 더 적게 받고, 직접적인 성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Woo, Kim과 Park(2001)은 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이 컴퓨터와 비디오 음란물 접촉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연구를 한 결과, 성 교육 후 실험군

은 성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음란물 접촉에 대한 의식점수가 높았고, 컴퓨터를 통한 원조교제에 대한 의식점수가 높았으며, 음란물 접촉빈도가 적었다고 하면서 음란물에 대한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나 교사인 어른들의 입장에서 고려된 보수적이고 전 근대적인 성교육방법과 내용만을 고수하여 무조건적으로 음란물 접촉을 막는 것보다는, 아동이 올바른 성의식을 확립하여 스스로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않아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비판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아동들 스스로가 성행동의 주체로서 음란물 공해에서도 자신 있게 맞설 수 있는 성숙한 자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무차별적인 대중매체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의 조기 구축이 요구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아동의 음란물 접촉여부, 접촉유형과 행태, 음란물 접촉 후 반응과 성 갈등의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초등학교 아동의 성의식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이다. 연구결과, 음란물에 접촉한 경험은 남아 34.4%, 여아 27.4%로 전체의 1/3 수준이었다. 음란물에 접촉한 아동은 남녀 모두 컴퓨터를 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음란물 접촉 동기가 '우연히'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음을 감안할 때, 이는 정보화시대에 따른 부작용에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교생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기 쉬우며 이로 인한 성 혼란감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음란물 접촉 빈도는 남녀 모두 대부분 거의 안보거나, 몇 달에 한번 본다가 가장 많았고, 음란물 접촉 장소는 남녀 모두 자기 집이 가장 많았으며, 음란물 접촉 이유는 '우연히'가 가장 많았으므로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집에서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규제대책이 필요하다. 음란물 접촉 후 반응은 남녀 모두 부끄럽고 창피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가장 많았고, 음란물을 접촉한 남녀 아동간의 성 갈등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 갈등은 음란물 접촉한

아동과 접촉하지 않은 남녀 아동 모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t=3.84$ ,  $P=.000$ ;  $t=3.96$ ,  $P=.000$ ), 음란물 접촉 아동이 접촉하지 않은 아동보다 성 갈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들이 접촉하는 포르노물은 어린 남녀 구별없이 학생들의 성정체감에 혼란을 주고 부정적인 성 인식을 갖게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아동들의 음란물 접촉이 컴퓨터 매체와 스팸메일을 통해 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건전한 제도적 규제대책 마련과 가정에서 부모의 관심과 바른 지도가 뒷따라야 하며, 학교 보건교사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교육 및 성충동 대처능력 함양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의 모색이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이라 그런지 남녀 간 대부분이 비슷한 응답을 보였으나 남학생의 경우 음란물 접촉 후 충동적 반응이 더 높게 나왔으므로 남학생들의 경우 성충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체육 및 문화적 공간 마련과 활동을 격려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요구된다.

## References

- Cho, J. Y., & Kim, Y. H. (2004). Sexual messages in the media and sexual reaction of adolescents: Attitude and behaviors toward sex. *Journal Korean of Home Economic Association*, 42(3), 159-178.
- Garry, A. (1983). *Pornography and respect for women*. In Copp & Wendell ed.
- Gruer, E., & Grube, J. W. (2000). Adolescent sexuality and the media: A review of current knowledge and implications. *West Journal of Medicine*, 172, 210-214.
- Hong, J. R. (2003). *Study o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pornography contact of actual conditions and sex attitude in wonju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Wonju.
- Kang, E. M. (2004). *The difference of sexual knowledge, consciousness and behavior by experience of sexually obscene materials on the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cheon.
- Kim, C. N., & Woo, H. J. (2001). A cross sectional study on elementary students' access to computer online pornography.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2(1), 150-167.
- Kim, D. S. (2004). *Influences of primary school students' contacting computer obscene pictures upon their sex-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University, Chonju.
- Kim, H. J. (2002). *Whole country of elementary · middle school student's ill action actual conditions report*. Seoul: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department.
- Kim, S. W. (2003). Teenagers' sex problem and educational countermeasure. *Journal Korean Sexol*, 67-72.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5). 2005 Teenagers statistics. [www.nso.go.kr/nso2005/bbs/report10/view.jsp](http://www.nso.go.kr/nso2005/bbs/report10/view.jsp) current Page
- Lee, M. H. (1998). *Effect that sex attitude and knowledge in sex discord by pornography medium conta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Oh, D. J. (2003). Study on the relation of the youth's sex knowledge · sex behavior and sex value in cyber age. *Korean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19, 719-733.
- Oh, G. H. (2003). *Effect that internet pornography medium gets in elementary school pupil's sex's conscious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Park, C. G. (2001). *Effect that contact for pornography of cyber space gets in teenagers' mind heal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Asan.
- Park, S. A. (1997). *Culture technology school register research about use experience of natural family planning metho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Strasburger, V. C. (1996). Adolescent and the media: medical and psychological impact. In A.E. Kazdin, (Ed.), *Developmental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iatry series*, London New Deli: Sage Publications.
- Woo, H. J., Kim, C. N., & Park, K. M. (2001). Effect of sex education on middle school students' access to the obscene online computer and video film contents.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2(3), 795-814.
- Yom, Y. H., Yun, Y. S., & Lee, K. E. (2002). Exposure of middle school students to pornography.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3(1), 137-146.